

하야시 후미코(林芙美子)의 결혼생활

-『청빈의 글(清貧の書)』을 중심으로-

이상복*
sblee@syu.ac.kr

<目次>

- | | |
|--------------|-------------------------|
| 1. 서론 | 3. ‘나’를 통해서 본 후미코의 결혼생활 |
| 2. 후미코의 남성편력 | 4. 결론 |

主題語: 남편(Husband), 사랑(love), 배려(consideration), 폭행(violence), 결혼생활(marriage life)

1. 서론

『청빈의 글(清貧の書)』¹⁾은 하야시 후미코(이하, ‘후미코’로 약칭)가 1926년에 결혼²⁾하게 된 데쓰카 료쿠빈(手塚緑敏)과의 초기 결혼생활을 5년이 지난 후,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그린 작품이다.

흔히 『방랑기(放浪記)』³⁾를 통해 작가로서 명성을 얻게 된 후미코의 작품이라면, 우선 ‘방랑’과 ‘허무’를 떠올리게 된다. 후미코가 최초의 작품에서는 행상을 하는 부모를 따라 다닐 수밖에 없는 방랑생활을, 후기 작품에서는 생의 허무감이 내재된 여러 작품을 발표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 삼육대학교 일본어과 교수

- 1) 『청빈의 글(清貧の書)』은 1931년『改造』에 발표.
- 2) 도쿄로 상경(1922년)한 후미코는 1923년 오카노 군이치와 헤어지고, 1925년에는 두 번째 남편 노무라 요시아(野村吉哉)와도 헤어진다. 평소 친분이 있던 히라바야시 다이코(平林たい子)도 1926년 아나키스트인 이다 도쿠다로(飯田徳太郎)와 헤어진다. 혼자가 된 후미코와 다이코는 혼고 3초메의 다이쿠로야(大黒屋)라는 술집 이층에서 함께 동숙한다. 그러다가 1926년 9월 다이코가 고보리 진지(小堀甚二)와 결혼하게 되자, 그해 10월에 후미코는 오노미치로 간다. 다시 상경한 후미코는 12월 데쓰카 료쿠빈(手塚緑敏)과 결혼한다. 和田芳恵(1981)『解説』『林芙美子集新潮日本文學』22, 新潮社 p.528참조
- 3) 『방랑기(放浪記)』(1930년)는 후미코의 외로운 어린 시절에서부터 여러 직장으로 전전하며 당한 배고픔과 멸시의 경험을 그대로 실은 자전적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청빈의 글(淸貧の書)』은 후미코 전기 작품인 『방랑기(放浪記)』와 『아코디언과 해변마을(風琴と魚の町)』과 더불어 자전적 3대 명작⁴⁾으로 꼽히고 있으며, 이 세 작품은 서로 깊은 연관관계가 있다.

특히, 『청빈의 글』에는 후미코가 경험한 결혼생활에 대한 허무감과, 동시에 결혼생활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되어 가는 과정들이 현실감 있게 잘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가 그다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해설부분이나 후미코에 대해 전체적으로 언급할 때 잠깐 작품해설로 정리되어 있을 정도이다. 그 대부분은 “청빈한 생활을 하는 신혼부부의 이야기⁵⁾”, “료쿠빈과 결혼할 당시의 소재를 중심으로 가난하지만 아름다운 애정으로 맺어진 부부 모습⁶⁾”을 그린 작품이라는 평을 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박호영 연구자는 “‘나’의 결혼생활의 파탄원인이 남편의 폭력과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비롯된 것임을 한 여자의 경험으로 보여준 작품⁷⁾”이라는 평을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후미코의 모델이기도 여주인공 ‘나’가 도쿄에서 “4년” 동안 생활하면서 “세 남자의 아내”가 될 수밖에 없었던 빈곤한 생활상과 그 세 번째 남편 고마쓰 요이치(小松興一)와의 결혼 초기 생활모습을 통하여, 후미코가 남성편력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생활환경과 데쓰카 료쿠빈의 배려와 이해로 정신적인 안정감을 회복해 가는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초기작품 『방랑기』와 『아코디언과 해변마을(風琴と魚の町)』도 연구대상으로 하여 논증해 나가기로 한다.

2. 후미코의 남성편력

후미코는 어머니 기쿠(林キク, 36세)와 아버지 미야타 아사타로(宮田麻太浪, 21세)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 이전에 이미 기쿠는 남편이 다른 ‘2남 1녀’의 자식이 있었다.⁸⁾ 미야타가(宮田家)에서 이런 기쿠와의 결합을 인정하지 않아 후미코는 친부와 함께 생활하면서도 “사생아”로 어머니 기쿠의 호적에 입적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세 사람의 생활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친부 미야타 아사타로가 젊은 여자 ‘하마(ハマ)’라는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오자, 기쿠는 후미

4) 和田芳恵(1971)「解説」『新潮日本文学』22, 新潮社, p.531

5) 森英一(1992)「慎重な助走—『淸貧の書』の背景—」『林芙美子の形成』有精堂, p.108

6) 福田清人・遠藤充彦(1966)「淸貧の書」『人と作品 林芙美子』15, 清水書院, p.116

7) 박호영(2013)「하야시 후미코(林芙美子)의 『청빈의 서(淸貧の書)』론」『日本文化研究』제47집 동아시아일본학회, pp.191-212

8) 竹本千方吉(1985)『人間・林芙美子』筑摩書房, p.45

코를 데리고 집을 나온다.(1910년)

기쿠가 집을 나온 후 사와이 기사부로(澤井喜三郎)와 함께 살게 되자, 자연스럽게 그때부터 후미코는 의붓아버지⁹⁾와 생활하게 된다.

이 의붓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는 『아코디언과 해변마을(風琴と魚の町)』¹⁰⁾에서 후미코를 투영시킨 마사코를 주인공으로 하여, 유년기 시절 오노미치에서 자신들 모녀의 궁핍한 생계를 위해 행상을 하다 경찰관에게 굴욕을 당하던 희생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¹¹⁾

또한, 『방랑기』에서도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¹²⁾하고 있다.

언제쯤이나 나를 사랑해 주고, 행상을 해서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불쌍한 의붓아버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일까…….¹³⁾

이렇게 후미코는 친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자신을 위해 많은 희생을 한 의붓아버지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서, 한편으로는 어머니를 의붓아버지에게 빼앗겼다는 소원함도 배제할 수 없었다. 이런 후미코의 마음을 『청빈의 글』의 여 주인공 ‘나’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어렸을 적, ‘나’에 대한 어머니의 애정이라는 것은 의붓아버지 다음이라고 생각되어 ‘나’는 긴 시간 고독한 채로 비뚤어졌던 것이다.¹⁴⁾

이렇게 ‘나’는 어린 시절 고독한 시간을 보냈다. ‘나’의 모델인 후미코의 생활을 통해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자. 후미코는 어린 시절의 생활을 「문학적 자서전(文學的自叙傳)」에서, 양친이 잡화 행상으로 집을 비우는 날이 잦아 아무도 없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싫어서,

9) 본 논문의 인용문에서 문장에 따라 의붓아버지와 아버지로 표기하고 있지만 모두 의붓아버지를 지칭하고 있음을 밝혀 둔다.

10) 『아코디언과 해변마을(風琴と魚の町)』은 1931년 4월 「改造」에 발표

11) 이상복(2014)「하야시 후미코와 오노미치(尾道)-『아코디언과 해변마을(風琴と魚の町)』을 중심으로-」『일본근대학연구』제44집, 한국일본근대학회, p.168 참조

12) 이상복(2014)「하야시 후미코의 『방랑기(放浪記)』-가족, 부녀관계를 중심으로-」『일본문화연구』제51집, 동아시아 일본학회, p.314 참조

13) 『放浪記』 본문 인용은 林芙美子(1951)『林芙美子全集』2, 新潮社에 의함. 이하 동일 私を可愛がつて下さる、行商をしてお母さんを養つてゐる氣の毒なお義父さんを慰めてあげる事が出来るのだろうか… (『放浪記』, p.82)

14) 『청빈의 글(清貧の書)』의 본문 인용은 林芙美子(1952)『林芙美子全集』3, 新潮社에 의함. 이하 동일 子供の頃の母親の愛情なんかと云ふものは、義父のつぎのものものやうにさえ考えられ、私は長い間、孤独のまゝにひねくれてゐたのだ。(『清貧の書』, p.133)

여학교를 졸업하는 4년 동안 거의 도서관에서 살았으며, 그렇게 지나다 보니 친한 친구도 한 명 없었다고 회고하고 있다.¹⁵⁾ 이런 유년기에 경험한 아픔이 있는 후미코에게 이성교제를 통한 시련이 더해진다.

우선, 후미코의 이성관계에 대해 말할 때 가장 먼저 거론 되는 사람은 오카노 군이치이다. 이 군이치를 의지하여 후미코는 도쿄로 오게 된 것이다.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¹⁶⁾했으나, 군이치는 대학 졸업과 동시에 고향으로 혼자 내려가 버렸다. 도쿄에 혼자 남게 된 후미코는 첫사랑 실연의 아픔으로 인생관은 물론 성격까지 변해갔다.¹⁷⁾

이런 후미코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군이치와의 관계는 『방랑기』에 잘 나타나 있다.

나에게는 사닌¹⁸⁾을 선물해 주고 사랑을 가르쳐 준 남자가 아닌가. 도쿄로 처음 데리고 간 것도 그 남자, 믿어도 좋다고 했던 그 남자의 말이 가슴에 와 닿는다.¹⁹⁾

그런 남자가 후미코를 떠나버렸다.

남자의 편지에는 미국에서 돌아온 누나 부부가 아주 심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집을 나오더라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졸업하자마자, 1년간의 대학생활을 나와 함께 그 조시기가야에서 보낸 사람인데도 혼자 돌아가 버렸다.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는데 의붓아버지도 어머니도 잊고 일했었는데, 나는 얄은 젊은 날의 사랑 따위는 물거품보다 더 덧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다.²⁰⁾

후미코는 본인에게 직접 그 진실을 확인 하고 싶어 히타치조선소 인노시마 공장(日立造船所 因島工場)에 다니고 있는 오카노 군이치를 찾아 갔다. 그러나 “식구들이 너무 완고해서 이길 수도 없고”, 도쿄로 가면 “대학을 나와도 먹고 살 수가 없”다는 핑계를 대며 고향에서 살겠다는

15) 林芙美子(1952)「文學的自敘傳」『林芙美子全集』19 新潮社, p.5 참조

16) 板垣直子(1971)「林芙美子」『国文学解釈と鑑賞』36(6) 至文堂, p.245

17) 平林たい子(1969)『林芙美子』新潮社, p.47

18) 「사닌(Sanin)」: 러시아 작가 아르치바세프의 장편소설(1907년). 욕망의 만족을 인생의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허무주의자 사닌과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연애를 관능적으로 그린 작품으로, ‘사니니즘’이라는 말이 여기서 유래하였다.

19) 私に「サーニン」を送つてよこして、恋を教へてくれた男ぢやないか、東京へ初めて連れて行つたのもあの男、信じてゐていゝと言つたあのひとの言葉が胸に来る。(『放浪記』, p.97)

20) 男の手紙には、アメリカから帰つて来た姉さん夫婦がとてもカンコに反對するのと云つてゐる。家を出てでも私と一緒にになると云つておいて、卒業あと、一年間の大学生活を私と一緒にあの雑司ヶ谷でおくつたひとだのに、卒業すると自分一人でかへつて行つてしまつた。あんなに固く信じあつてゐたのに、お養父さんもお母さんも忘れてこんなに働いてゐたのに、私は浅い若い恋の日なんて、うたかたの泡より果敢ないものだと思つた。(『放浪記』, p.98)

오카노 군이치를 두고 혼자 돌아 올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일이 있고 일 년이 지난 후, 관동대지진으로 후미코는 도쿄(東京)를 떠나 잠시 동안 양친과 시코쿠(四國) 지방을 돌아 다녔다. 1924년에 다시 혼자 도쿄(東京)로 돌아 온 후미코는 생계를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해야만 했다. 이런 후미코의 도쿄에서의 방랑시대는 파괴된 도시 복구가 시작된 “변혁기의 도쿄”²¹⁾와 겹쳐 있다.

혼자 생활하기 힘들었던 후미코는 친구의 소개로 다나베 와카오(田邊若男)²²⁾를 만나 동거하게 되지만, 우연히 다나베 와카오의 가방에 들어 있던 야마지 지에코(山路千枝子)²³⁾의 연애편지를 발견하고 같이 생활한지 불과 2, 3개월 만에 헤어진다.²⁴⁾

『청빈의 글』에는 이런 다나베 와카오와의 짧은 만남은 빠져 있다. 그러나 『방랑기』에는 『청빈의 글』에서 두 번째 남편으로 그려진 우오타니 이치타로(魚谷一太郎)의 실존 인물 노무라 요시아(野村吉哉)와 생활하면서 형편이 너무 어려워 돈을 빌리기 위해 다나베 와카오를 찾아간 내용을 볼 수 있다.

나는 걸으면서 문득, 이전에 헤어진 남자에게 가서 10엔 정도 빌릴까 생각했다. 연극을 하는 사람이라 공연이라도 떠났다면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운은 하늘에 맡기고 전철(市電)을 타고 간다(神田)로 갔다. ²⁵⁾

후미코는 다나베 와카오를 만나자마자 대뜸 “10엔”빌려 빌려달라고 했다. 다나베는 당황해하면서도 이것 밖에 없다며 “5엔짜리 지폐”를 손에 쥐어 주었다. 이를 받아 든 후미코는 이미 헤어진 남자에게까지 돈을 빌리러 갈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처지가 비참해 눈물을 흘렸다. 마치 자신이 집 없는 부랑자 같은 생각이 들어 스스로도 혐오스런 기분마저 들었다.

이렇게 후미코를 곤경에 빠뜨렸던 노무라 요시아와의 결혼 생활은 『청빈의 글』과 『방랑기』에 상세하게 그려져 있다.

우선 『방랑기』에서는

21) 川本三郎(1973)「女給という都市生活者」『林芙美子の昭和』新書館, p.9

22) 다나베 와카오(田邊若男:1889.5.28-1966.8.30.)는 후미코 보다 14세 연상이며, 신극배우로 그 당시 유명한 여배우 마쓰이 스마코(松井須磨子)의 상대역을 맡기도 했다.

23) 야마지 지에코(山路千枝子)는 다이쇼(大正), 쇼와(昭和)기의 여배우로 연극에서 다나베 와카오의 상대역을 맡기도 했다.

24) 板垣直子(1987)「結婚の編暦」『婦人作家評伝』日本図書センター, p.61

25) 私は歩きながら、ふと、前に別れた男のところへ行つて十圓程金をかりようかと思つた。芝居をしてみたひとなので、旅興行にでも出てみたらしおしまひだと思つたけれども、運を天に任せて渋谷へ出て、それから市電で神田へ出てみる。(『放浪記』, p.233)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용기도 없는 여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오늘 아침 우리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다. 그리고 남자는 하고 싶은 대로 엉망으로 해놓고는 밖으로 나가버렸다. 뒷정리를 하는 것은 나다. 유리문은 깨지고, 커튼은 찢어지고, 접시도 밥그릇도 성한 게 없다. 가난하다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황량하게 만드는 것이다. (중략) 나를 건어차고 부엌의 광 속에 집어넣을 때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죽이는 건 아닐까하고 생각했다. 나는 아이처럼 소리를 내어 울었다, 몇 번이나 차여서 아프다기 보다 배려할 줄 모르는 남자의 마음이 증오스러웠다. 26) 어쩌다 목욕탕에 가서 다른 여자들처럼 목에 분을 바르고 돌아오면, ‘당신 목은 자라목이라 굵어 보여 흉하다’는 말을 한다. 어쩌면 좋을지 나는 알 수가 없다. 이 남자와 평생을 같이 사는 동안은 강철처럼 단련되어 울지도 웃지도 않는 여자로 훈련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27)

『청빈의 글』에서는

궁핍하여 며칠씩 밥을 먹지 못하면 나를 때리고, 쌀 대신에 민들레를 데쳐 먹었다고 두들겨 패고, “당신은 어쩌서 그렇게 천한 여자 티가 벗겨지지 않는 거냐. 무슨 생각으로 옷깃을 등까지 내리는 거냐.”라며 때렸다. 정말이지 매일 내 뼈는 우두둑하며 부서질 정도로, 맞기 위한 목각 인형 같은 존재였다. 28)

이렇게 노무라 요시아는 후미코에게 육체적 폭행과 더불어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는 후미코가 일하는 곳까지 찾아와 “재떨이를 집어 던지고”, “도망가면 머리채를 잡고 다다미에 내 팽개치기”도 했다. 이렇게 후미코를 괴롭히던 노무라 요시아 역시 다나베 와카오와 마찬가지로 새 애인이 생겨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된다. 후미코는 노무라 요시아와 생활이

-
- 26) 私は何も出来ない。勇氣もない女になりさがつてしまつてゐる。今朝、私たちは命がけであらそつた。そして、男はしたいだけの事をして街へ行つてしまつた。あとかたづけをするのは私なのだ。障子は破れ、カーテンは引きちぎれ、皿も茶碗も満足なのはない。貧乏をすると云ふ事が、こんなに私達の心身食ひ荒してしまふのだ。(中略) 私は足蹴にされ、臺所の揚げ板のなかに押しこめられた時は、このひとは本当に私を殺すのではないかと思つた。私は子供のやうに声をあげて泣いた。何度も蹴られて痛いと言ふ事よりも、思ひやりのない男の心が憎かつた。(『放浪記』, p.229)
- 27) たまに風呂へ行つて、よその女のやうに首へおしろいを塗つて戻ると、君の首はぬくびだから太くみえてみにくいのだと云ふ。どうしたらいいのか私には分からない。この男と一生連れそつてゆくうちには、はがねのやうにきたへられて、泣きも笑ひもしない女に訓練されさうな気がして来る。(『放浪記』, p.233)
- 28) 貧乏をして何日も飯が食えぬと私を叩き、米の代りにたんぼを茹でて食わせたと云うては殴り、「お前は どうして そう下品な女のくせが抜けないのだ。衿を背中までずつかすのはどんな量見なんだ」と、さう云つて打擲し、全く、毎日私の骨はガラガラと崩れて行きさうで打たれる為のデクのやうな存在であつた。(『清貧の書』, p.115)

가장 비참했다며, 작품에서 “잔혹하고 무정한 남자”로 표현하고 있다. 이에 노무라 사와코(野村沢子, 노무라 요시아의 부인)는 “자신에게 친절한 남편의 이미지를 무참하게 그리고 있다며 후미코에게 항의하기도 했다.”²⁹⁾

두 번째 남편 우오타니 이치타로(魚谷一太郎)와 헤어진 ‘나’는 세 번째 남자 고마쓰 요이치(小松與一)와 생활하게 된다.

애초 두 남자의 아내였던 과거가 있어, ‘나’는 이전 남자들의 근성을 누가 뭐라 해도 지금에 와서도 낯아서 거무데데해진 표본과 같이, 또 다른 기억의 범위 안에 굳게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러쿵저러쿵’하고 언쟁하는 일은 매우 귀찮은 일이기도 했다.³⁰⁾

위의 인용문에서 “두 남자의 아내였던 과거”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후미코는 료쿠빈과 결혼하기 전에 첫사랑인 오카노 군이치와 이별, 신극배우 다나베 와카오와 시인 노무라 요시아와의 동거경력이 있었다.³¹⁾ 그뿐만 아니라, 히라바야시 다이코는 후미코가 노무라 요시아와 동거하기 전에 “조선 용산의 술집아들로 하숙을 하면서 대학”에 다니고 있는 “동양대학 학생이었던 R씨”와 동거를 했다고 적고 있다.³²⁾

그러나 일반적으로 후미코와 관련이 있는 남자라면 오카노 군이치, 다나베 와카오, 노무라 요시아로 알려져 있으며, 텍스트에서는 첫 번째 결혼 상대를 오카노 군이치, 두 번째 결혼 상대는 노무라 요시아, 세 번째 결혼 상대가 데쓰카 료쿠빈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³³⁾ 그중에서도 특히 “작가인생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연애는 오노미치(尾道)에서 만난 6년간의 첫사랑”³⁴⁾ 오카노 군이치로, 그와의 이별로 많은 방랑을 했다.

텍스트에서 ‘나’는 이미 두 번의 결혼 실패 경험에 있어, 세 번째 결혼생활에 그다지 기대를 갖지 않고, 그냥 부부로서 살아간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었다. 이런 ‘나’의 남성편력을 『방랑기(放浪記)』에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으로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으면 살아 갈 수 없는 여자”(『방랑기(放浪記)』 p.382)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29) 村松定孝(1980)『貧しさの中からの開化林芙美子』『近代女流作家の肖像』東京書籍, p.219

30) もともと、二人もの男の妻になつた過去を持つてゐて、一私にかつての男たちの性根を、何と云つても今だに煤けた標本のやうに、もうひとつの記憶の埒内に固く保存してゐるので、今更「何ぞかぞ」と云ふ合ひする事は大変面倒な事でもあつた。(『清貧の書』, p.114)

31) 下山嬢子(1998)『林芙美子の男性観』『國文學 解釋と鑑賞』63(1) 至文堂, p.6

32) 平林たい子(1969) 전제서, p.75

33) 데쓰카 료쿠빈을 텍스트에서 ‘나’의 세 번째 남자 고마쓰 요이치로 볼 수 있는 것은, 서론에서 밝힌 것처럼 두 사람의 직업이 화가로 그려져 있으며, 후미코가 도쿄에 온지 4년 만에 만났다는 것 등으로 같은 인물임을 알 수 있다.

34) 清水英子(2004)『林芙美子 尾道から始まつた作家人生』『文芸 別冊』河出書房新社, p.176

그렇다면 『청빈의 글』과 『방랑기』를 통해서, 후미코는 자신이 남자와의 생활을 지겨워하면 서도 남성편력을 이어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때 맞는 육체적 고통보다도 어릴 적 경험한 정신적 외로움과 고독감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후미코를 이해하며 감싸준 사람이 데쓰카 료쿠빈이다. 료쿠빈의 끝없는 사랑으로 인해 결혼생활에서 조금씩 행복을 찾아가는 후미코의 감정변화를 다음 장에서 ‘나’와 고마쓰 요이치의 생활을 통해서 분석 해 보기로 한다.

3. ‘나’를 통해서 본 후미코의 결혼생활

‘나’는 헤어진 남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도 항상 혼자라는 고독감을 떨쳐 버리지 못했다. 그러나 세 번째 남편 고마쓰 요이치에게서 지금까지의 남편들과 다른 모습을 보게 된다.

산마를 태생이기 때문인지 마치 우거진 숲처럼 털이 많은 다리를 내밀고, 요이치는 바쁘게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나는 무척 기뻐다. 남자가 힘껏 짐을 꾸리는 모습을 보며, 언제나 스스로 고리짝을 싸던 혼자였을 때의 지루함이 떠올라, 묘하게 ‘아무튼 둘이서 오래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³⁵⁾

‘나’는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항상 모든 일을 혼자서 책임져야만 했다. 그런 생활에 익숙해져 있던 ‘나’였기에 “남자가 힘껏 짐을 꾸리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둘이서 함께 한다는 생각에 기뻐다. 그러면서도 두 번째 남편인 우오타니 이치로와의 악몽이 아직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행복도 자신의 몫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궁핍해도 나를 괴롭히지 말아요 때리지 말아요 이 이상 우리들이 풍요로워질 것이라고는 생각도 않지만, 이 보다 더 먹을 수 없게 되는 날도 우리들에게 종종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나를 때리지 말아 주세요. 만약 어떻게든 때리겠다면, 나는……또 당신에게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나는 이번에도 맞게 되면 흔들거리는 오른쪽 늑골 하나는 완전히 부러져서 일할 수 없게 될 거예요.³⁶⁾

35) 山国の産のせいであらう、まるで森林のやうに毛深い脚を出して、与一は忙がしく荷造りを始めた。私はひどく楽しかった。男が力いっぱい荷造りをしてゐる姿を見ると、いつも自分で行李を締めていた一人の時の味気なさが思い出されてきて、「とにかく二人で長くやつて行きたい」とこんなところで、一妙にあまくなつてゆく。(『清貧の書』, pp.117-118)

이처럼 ‘나’는 요이치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때리지 말라고 부탁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에 또 맞게 되면 ‘나’는 이제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한다. 이런 ‘나’의 절규에 가까운 말을 듣고, 오히려 요이치는 황당해 하며 자신은 “로맨티스트”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헤어진 남자가 돈이 있으면 정신없이 낭비해 버리고 먹을 게 없어지면 그 울분을 자신을 때리는 것으로 풀곤 하였기 때문에 아직 그 아픈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요이치의 말을 그대로 믿지 못했다. ‘나’는 요이치에게도 그다지 기대를 걸지 않고 그저 ‘이 남자도 나한테서 도망’가기 않고 함께 살아주기만을 바랐다.

“저, 나 같은 여자는 그렇게 끌리지 않는 부류의 여자예요? 하지만 부부잖아요. 더욱이 나는 누구에게서도 돈을 받을 데도 없고…….”³⁷⁾

‘나’는 지금까지의 남편들이 항상 돈을 낭비하고 궁핍해지면 폭행을 해 왔으므로, 세 번째 남편와도 행복해 질 것이라는 상상을 하지 않았다. 이는, 이케우치 오사무(池内紀)가 “가난함의 특성은 단지 가난하다고하는 것만이 아니고 가난함 그 자체가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다”³⁸⁾라고 적고 있듯이, 이미 ‘나’는 경제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찌들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표면상으로 보면 고마쓰 요이치와의 생활도 경제적으로는 지금까지의 결혼생활과 별반 다를게 없을 정도로 “굶는 것과 같은 날들이 계속”³⁹⁾되었다. 그러나 요이치는 가난한 생활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며, 더 나아가 “비굴한 생각은 자신을 추락”시키므로 당당해지라고 조언까지 한다.

요이치에 대해서는 어쩐지 육친 같은 애정이 생겼다. 일찍이 두 남자에게 느끼지 못했던 행복감이

36) 「どんなに貧乏しても苛めないで下さいよ、殴らないでよね、これ以上私達豊かにならうなんて見当もつかないけれど、これ以上に食へなくなる日は、私達の上に度々あるでしょうし、でも、貧乏するからと云つて、私の体を打擲しないで下さい。もしも、どうしても殴ると云ふのなら、私は……またあなたから離れなければならぬもの、それに、私は今度殴られたら、グラグラした右の肋骨の一本は見事に折れて、私は働けなくなつてしまふでせう」(『清貧の書』, p.116)

37) 「僕はとてもロマンチストなんだからね、だが、君のどんなところに僕は惹かされたんだろう……」さうむきになつて云われると、私はまた泪ぐまずにはゐられなかつた。「またこの男も私から逃げて行くのだろうか」男心と云ふものは、随分と骨の折れるものだ。別れた二人の男達も、あれでもない、これでもないと云つて、金があると埒もなく自分だけで浪費してしまつて、食えなくなるとそのウップンを私の体を打擲する事で誤魔化してゐた。「ねえ、私のやうな女は、そんなに惹かされない部類の女なの？ だつて夫婦ですものね、それに、私は誰からも金を送つてもらふ当はないし……」(『清貧の書』, p.120)

38) 池内紀(1996)『慎重な助走-林芙美子の『清貧の書』』『太陽』34(9) 平凡社, p.134

39) 森英一, 전게서, p.106

묘하게 ‘나’를 눈물 나게 해서 나는 굳게 입을 다물고 고개를 떨구었다.⁴⁰⁾

‘나’는 처음으로 남편의 “사랑”과 “애정”을 요이치에게서 느끼게 된다. 이렇게 조금씩 서로에 대해 알아갈 즈음 요이치가 3주간 군 입대를 해야만 했다. 이 시기의 일본은 만주사변(1931년)에서 중일전쟁(1937년)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있어 젊은 남자들은 군복무에 대한 의무가 주어졌다. 요이치도 예외 없이 ‘나’와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군입대하면서도 요이치는 혼자 남게 될 ‘나’의 생활을 염려하며 걱정하였다. 요이치의 이런 배려어린 행동에 ‘나’는 감동 할 수밖에 없었다.

“건강하게 있으라고”

긴 플랫 홈을 걷고 있는 사이, 요이치는 같은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다. 나는 그런 다정한 말을 듣자, 묘하게 가슴이 막혔다. ⁴¹⁾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요이치는 ‘나’에게 계속 편지 보내왔다. 그러나 ‘나’는 요이치의 진실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닫힌 공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나’의 행동을 잘 이해할 수 없었던 요이치는 네 번째 편지와 다섯 번째 편지에서 ‘나’에게 답장을 보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다.

네 번째 편지는 어쨌든 나는 계속 당신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 같다. 당신은 가벼운 남자라고 생각할지도 몰라.—멀리 떨어져서 먹는 것에 곤란함을 겪지 않으니 당신이 어떤 식으로 먹고 있는지 걱정이 된다. 아직 한 번도 당신의 편지를 받지 못했어. 당신도 앞으로 생활에 질서를 세우고 정말로 안정이 되면 좋을 텐데. 안정이 된다는 것은 부르주아 부인 흉내를 내라는 것이 아니야. 나와 당신의 생활에 대한 힘을 모으는 일이야.⁴²⁾

다섯 번째 편지에는 “아직 당신 편지를 받지 못했어. 당신은 이상한 의리를 지킨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겠지. 이제 일 이년 지나면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지 알겠지만 그런 낡은 생각은

40) 与一に対して、何となく肉親のやうな愛情が湧いた。かつての二人の男に感じなかつた甘さが、妙に私を涙もろくして、私は固く二重顎を結んで下を向いた。(『清貧の書』, p.131)

41) 「元気でいるんだよ」長いホームを歩いてゐる間中、与一は同じ事を何度も繰り返した。私は、そんな優しい言葉をかけられると、妙に胸が詰つた。(『清貧の書』, p.132)

42) 第四番目の手紙は、どうも俺は、始終お前に手紙を書いているやうだ。お前は甘い奴と思うかも知れない。—遠く離れて食べる事に困らないと、君がどんな風に食べているんだらうと云ふ事が案ぜられるのだ。まだ一度も君から手紙を貰っていない。君もこれから生活にチツジョを立てて、本当に落ちついたらいいだらう。落ちつくと云ふ事は、ブルジョアの細君の真似をしると云ふのではない。俺と君の生活に処する力を貯へる事さ。(『清貧の書』, p.133)

버렸으면 좋겠어. 당신은 나에게 가능하면 나쁜 말은 하지 않고,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는 것 같지만,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뭐, 어쨌든 곤란한 버릇이라고 말해두겠어. 동봉한 돈은 군대에서 받은 돈과 도교를 떠날 때 여비와 숙박비로 쓰고 남은 거야. 나는 무일푼이야. 하지만 살아 갈 만큼은 먹고 있어. 곤란하지 않아.”⁴³⁾

요이치는 군대에서 받은 돈과 도교를 떠날 때 여비와 숙박비를 쓰고 남은 돈까지 보내주었다. 이런 요이치의 진심어린 행동을 보며 ‘나’는 드디어 답장을 보낸다. 이에 대한 답장으로 요이치가 여섯 번째 편지를 보내왔다.

여섯 번째 편지, “당신은 내 마음 속에서 점점 솔직하게 성장해 간다. 편지는 읽었어. 한자도 빼놓지 않고 읽었어. 당신처럼 유유히 읽지 않았어. 당신 모습을 공상하면서 읽었어. 내가 보면 이십 엔 정도 돈이 상당히 울컥한 것 같던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라고는 생각했어. 어머니에게 십오엔 보냈다고 내가 화낼 거라고 생각했다면 당신은 나에게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거야. 나도 사요보에 편지를 보낼 게. 당신이 일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것도 좋겠지.”⁴⁴⁾

요이치는 ‘나’ 뿐만 아니라 ‘나’의 부모에게도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인다. 게다가 ‘나’에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라며 독려하기도 한다. 이런 편지왕래가 텍스트에 아홉 번까지 있는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여섯 번까지의 편지 내용만 실고 있다.

이런 요이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된 ‘나’는 스스로 손거울을 보며, “스물세 살”인데도 입술은 거칠고, 눈꺼풀은 깊게 그늘이 드리웠고, 속눈썹도 군데군데 빠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지금까지 자신을 사랑한 적이 없는 ‘나’는 요이치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자, 비로소 여자로서 자신의 외모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연지도 분도 바르지 않은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많은 애정을 쏟아 주는 요이치의 배려를

43) 五番目の手紙には、「まだ、お前の手紙を手にしな。君は例の変な義理立てと云った風なものに溺れているのだらう。もう一二年もたつたらそれがどんなに馬鹿らしかつたかと解るだらうが、そんな古さは飛び越える決心をして欲しい。君は、僕に、なるべく悪い事を聞かすまい、弱味を見せまいとしているらしいが、そんな事は吹けば飛ぶやうな事だ。マア、兎に角困つた習癖だと云つておかう。同封の金は、隊で貰つたのと、東京を出る時、旅費や宿料の残りだ。僕は老銭もなくなつた。だが生きるやうなものは食つてゐる。困らない。」(『清貧の書』, p.135)

44) 第六番目の手紙、「君は僕の心の中で、だんだん素直に成長して行く。手紙は読んだ。一字も抜かさないうやうに読んだ。君のやうに忽々と読むんではない。君の姿を空想して読むのだ。僕の送つた貳拾円ばかりの金が、よつぽど応えたらしいが、何かあるのだらうとは思つていた。—お母さんへ拾五円送つたつて、そんな事を僕が怒ると思つたら、君は僕の事について認識不足だよ。僕からも、佐世保へ手紙を出しておかう。君は働きたいとあるが、それもいいだらう。」(『清貧の書』, p.135)

과거 두 남자들에게서는 찾을 수 없었다.⁴⁵⁾

‘나’는 드디어 요이치를 좀 더 빨리 만났더라면, 지금의 모습과는 다른 “싱그러운 여자”가 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보기도 한다.

이치와의 생활에서 좀 더 내게 청춘이 있다면, 분명 나는 옛되고 싱그러운 여자가 되었을 것이지만, 항상 들개처럼 먹는 일에 안달하는 나다. ⁴⁶⁾

이렇게 지금까지의 ‘나’의 생활 속에 팽배해져 있었던 “끝없는 사막으로 출발”하는 것 같은 불안감이 요이치의 열정적인 사랑에 힘입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비로소 ‘나’도 요이치가 늘 말하던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편안함과 안정감을 되찾고, 행복한 생활을 꿈꾸게 된 것이다.

마침내 ‘나’는 토마토가 빨갭게 익기를 기다렸다. 그때쯤이면 요이치가 돌아 올 것이라는 기대를 해 보기도 한다.

기합술 진료소에서 받아 온 토마토 모종이 겨우 세 개만 노란 꽃을 피웠다. 그 꽃이 떨어지고 빨간 열매가 익을 즈음 돌아올까. ⁴⁷⁾

토마토 꽃이 떨어지고 파란 열매를 세 개 맺었다. 일찍이 없었던 즐거움이 나를 매우 즐겁게 했다.⁴⁸⁾

평소에 경제적 빈곤으로 자신의 외모와 자연에 대해 관심을 가질만한 정신적 여유가 없었던 ‘나’는 관대한 남편의 사랑으로 여자로서 화장품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토마토가 빨갭게 익기를 기다리는 여유를 갖기 시작한다.

이런 “‘나’의 성장은 곧 하야시 후미코의 성장”⁴⁹⁾으로, 료쿠빈의 배려로 조금씩 행복을 찾아가는 후미코의 결혼생활이 상세하게 잘 그려져 있다.

45) 紅もなければ白粉もない、裸のまゝの私に、大きい愛情をかけてくれる与一の思ひやりを、私は、過去の二人の男達の中には探し得なかつた。(『清貧の書』, p.133)

46) 与一との生活に、もっと私に青春があれば、きっと私は初々しい女になったのだらうけれど、いつも、野良犬のように食べる事に焦る私である。(『清貧の書』, p.117)

47) 気合術診療所から貰つて来たトマトの苗が、やつと三ツばかり黄色い花を咲かせてゐた。あの花が落ちて、赤い実が熟する頃は帰つて来るのだらう。(『清貧の書』, p.130)

48) トマトの花が落ちて、青い実を三ツ結んだ。かつてなかつた樂しさが、非常に私を朗らかにした。(『清貧の書』, p.134)

49) 森英一 전에서 p.112

4. 결론

후미코는 유년기 시절부터 부모를 따라 방랑생활을 하였다. 그런 후미코가 첫사랑 오카노 군이치를 의지하여 오노미치에서 도쿄로 상경한다. 이렇게 후미코의 초기 도쿄에서의 생활은 오직 오카노 군이치와 함께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오카노 군이치는 대학 졸업 후 후미코를 남겨두고 혼자 고향으로 가버려,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된다. 이 첫사랑과의 이별은 후미코의 인생관마저 바꾸어 놓을 만큼 큰 충격이었다.

그 후, 후미코는 여러 번의 결혼과 이혼을 되풀이 한다. 여기서 결혼이라고 표현하지만 거의가 동거라고 할 수 있다. 후미코가 이렇게 동거를 되풀이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사람은 『청빈의 글』에서 ‘나’의 두 번째 남편 우오타니 이치타로의 모델인 노무라 요시야로, 그와의 생활에서 폭행과 학대를 받으면서 정신적 충격을 가장 많이 입은 것으로 그려내고 있다.

이런 노무라 요시아와 헤어진 후, 그때의 악몽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후미코는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으면 살아 갈 수 없는” 공허감 때문에 다시 데쓰카 료쿠빈과 결혼하게 된다.

후미코는 일찍이 유년기에 경험한 외로움과 부모 사랑의 결핍을 이성과의 관계에서 채우고 싶었지만 여의치 않았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남자와의 생활을 지겨워하면서도 남성편력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청빈의 글』에서 ‘나’는 데쓰카 료쿠빈을 모델화한 세 번째 남편 고마쓰 요이치와 만나, 폭행만 당하지 않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그러나 뜻밖에도 고마쓰 요이치는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배려해 주었다. 그런 요이치의 행동에 ‘나’는 바로 반응하지 않고 긴 탐색전을 거듭한다. 끝내 요이치가 군 입대 후 보내온 여러 통의 편지를 통해 조금씩 마음 문을 열기 시작한다.

그 결과 비로소 ‘나’의 생활과 감정에도 변화가 찾아와, 여자로서 외모에도 관심을 보임과 동시에 아름다운 자연에도 눈을 돌릴 수 있는 여유를 찾아가게 된다. 『청빈의 글』에는 이렇게 변한 ‘나’가 사랑하는 요이치가 돌아올 날을 기다리는 모습까지만 그려져 있다.

이런 ‘나’의 변화과정을 후미코와 데쓰카 료쿠빈과의 생활로 옮겨보면, 실제로 료쿠빈은 여러 번의 결혼 실패로 상처가 있는 후미코의 “혼과 육체”를 따뜻하게 감싸주며, 그녀의 곁을 끝까지 지켜주었다. 후미코와 료쿠빈의 생활상을 기초로 하고 있는 『청빈의 글』은 후미코의 도쿄에서의 힘들었던 생활상과 함께, 그녀의 실패한 결혼에서 정신적 안정을 찾아가는 성공한 결혼으로 나아가는 심경을 잘 그려내고 있다.

이는 단순한 후미코의 결혼생활 공개에 그 의의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후미코 자신이

어릴 적 깊은 상처를 조금씩 치유하여 가는 과정 속에 이 결혼생활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그녀의 인생에 료쿠빈의 무게 비중이 아주 크다는 것을 ‘나’와 요이치의 결혼생활을 통하여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다.

【參考文獻】

- 박호영(2013)「하야시 후미코(林芙美子)의『청빈의서(淸貧の書)』론」『日本文化研究』47, 동아시아일본학회, pp.191-212
- 이상복(2014)「하야시 후미코와 오노미치(尾道)-『아코디언과 해변마을(風琴と魚の町)』을 중심으로-」『일본근대학연구』제44집, 한국일본근대학회, pp.157-171
- 이상복(2014)「하야시 후미코의『방랑기(放浪記)』-가족, 부녀관계를 중심으로-」『일본문화연구』제51집, 동아시아 일본학회, pp.309-324
- 池内紀(1996)「慎重な助走—林芙美子の『淸貧の書』」『太陽』34(9) 平凡社, pp.132-136
- 板垣直子(1987)「結婚の編曆」『婦人作家評伝』日本図書センター, pp.60-70
- _____(1971)「林芙美子」『国文学解釈と鑑賞』36(6), 至文堂, pp.240-249
- 川本三郎(1973)「女給という都市生活者」『林芙美子の昭和』新書館, pp.21-38
- 清水英子(2004)「林芙美子尾道から始まった作家人生」『文芸別冊』河出書房新社, pp.176-182
- 下山嬢子(1998)「林芙美子の男性觀」『國文學 解釋と鑑賞』63(1), 至文堂, pp.61-65
- 竹本千方吉(1985)『人間・林芙美子』筑摩書房, pp.1-249
- 林芙美子(1952)「文學的自叙傳」『林芙美子全集』19, 新潮社, pp.5-13
- 平林たい子(1974)「解説」『日本の文學』47, 中央公論社, pp.486-496
- _____(1969)『林芙美子』新潮社, pp. 1-175
- 福田清人・遠藤充彦(1966)「淸貧の書」『人と作品 林芙美子』15, 清水書院, pp.114-124
- 村松定孝(1980)「貧しさの中からの開化林芙美子」『近代女流作家の肖像』東京書籍, pp.201-249
- 森英一(1992)「慎重な助走—『淸貧の書』ほか—」『林芙美子の形成』有精堂, pp.105-113
- 和田芳恵(1981)「解説」『林芙美子集 新潮日本文學』22, 新潮社, pp.522-541

논문투고일 : 2014년 09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4년 09월 20일
 1차 수정일 : 2114년 10월 08일
 2차 수정일 : 2014년 10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4년 10월 19일

〈要旨〉

하야시 후미코(林芙美子)의 결혼생활

- 『청빈의 글(清貧の書)』을 중심으로 -

『청빈의 글』의 주인공 ‘나’는 두 번째 남편 우오타니 이치타로(魚谷一太郎)와 함께 생활하면서 구타를 많이 당했다. 이런 남편과 인내하며 결혼 생활을 유지해 왔지만, 결국 우오타니 이치타로에게 애인이 생겨 할 수 없이 헤어지게 된다. 그러나 다시 ‘나’는 결혼에 대한 기대감 없이 단지 폭행만 당하지 않고 살기를 바라며 누구에게나 의지하는 싶은 마음으로 세 번째 남편 고마쓰 요이치(小松 興一)와의 생활을 시작한다. 그만큼 ‘나’의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이 폭행을 당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뜻밖에도 고마쓰 요이치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나’를 이해하고, 배려해 주었다. 처음에는 자신을 사랑하는 요이치의 행동을 보고 언제 또 헤어질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적응이 잘 되지 않았다. 그런 ‘나’가 조금씩 정신적인 건강을 회복해 가기 시작한다.

‘나’의 표상이기도 한 하야시 후미코(林芙美子)는 유년기에 경험한 고독감과 방랑성에, 이성으로부터 당한 배신과 학대로 마음의 상처가 깊었다. 이러한 후미코가 데즈카 료쿠빈(手塚 緣)과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조금씩 부부로서 인생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는 결혼생활을 『청빈의 글』의 ‘나’와 고마쓰 요이치를 통해서 그려내고 있다.

The Marriage life of Hayashi Fumiko

- with a special reference to “Seihin no Sho” -

‘I’ as a heroine of “Seihin no Sho (The Book of Honest Poverty)” was continuously beaten in the second marriage life with Ichitaro Uoya. Even in a such circumstance, the heroine tried to maintain her marriage life, but ended up with leaving him after Ichitaro found a lover outside of their home. Then the heroine began the third attempt on her marriage life with Kyoichi Komatsu. She did not have a great expectation on the life and just wished to have it without domestic violence. It shows how much ‘I’ struggled to fulfill my hart with love.

However, unbelievably, Kyoichi Komatsu understood and considers the feeling of ‘myself’. In the begging of the relationship, Kyoichi showed his selfishness and ‘I’ was anxious about the uncertainty in the future. Then, gradually, ‘I’ started recovering my spiritual health.

Undoubtedly, Fumiko Hayashi reflected herself into ‘I’ and expressed her emotion damaged by violence and betrayals from her former boyfriends and husbands on top of the isolation and vagrancy in her childhood. Fumiko drew her own marriage life of seeking a little happiness with Ryokubin Tezuka through ‘I’ and Kyoichi Komatsu in “Seihin no Sho”.